

당신의 프란치스코적인 영혼을 위한 차(茶)¹ 명상과 관상의 순간

활동
 대담성
 진부, 진위
 보편성
 박애
 정결
 순환성
 명료함
 공동체
 창조성
 호기심
 믿음성
 존엄성
 다양성
 유연성
 특정한 방식,
 형태, 형성
 너그러움
 봉사료
 재미
 환대
 인성
 겸손
 정체성
 진실성
 내면성
 소수집단
 상호관계
 청빈
 수용
 신성함
 고요함
 소박함/단순함
 영성
 즉흥성
 삼위일체
 일치됨

*마치 차(茶)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풍성한 사랑안에 흠뻑 젖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보듯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고린토 1 서 13:12) 느린
 일이고, 자주 이해하는데도 더딤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한결같이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성장하고 변모하도록 우리 자신을 열 수 있게
 됩니다.*

9월에 저는 한 지역 형제회의 피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제는 “당신의 프란치스코적인 영혼을 위한 차(茶)” 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로 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이 형제회의 따뜻한 환대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과회에서 결과물에 큰 영감을 받아서 저는 우리의 연중 영성 발표회 중에 국가 형제회를 향기로운 프란치스코의 한 잔의 차에 초대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천천히 은은하게 정체성의 어울어짐을 즐겼습니다. 본질을 - 청빈, 겸손, 단순함, 박애의 결합- 들이마시고 섭취하였습니다. 한 모금 한모금이 우리를 궁극적인 일치와 삼위일체의 실체로 우리를 더가깝게 불러들였습니다.

원하시면, 왼쪽의 칼럼에서 하나 혹은 두개의 차를 선택하여보세요. 들이마시고, 긴장을 풀고 천천히 당신의 차를 마셔보세요. 이 질문들을 묵상의 안내로 삼아보세요.

무엇이 나를 이 차에 매혹되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 차가 내 삶에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이 차에 대해서 내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차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부분의 변모를 위해 나를 초대하신 걸까요?



묵상의 끝에서 하느님께 당신이 받은 어떤 통찰에 감사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선물, 당신의 특별한 차를 즐기고 품미하세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고린토 1 서 12:13)

오직 성령님만이 다양성, 다수를 일깨우시며 동시에 일치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¹ Inspiration of Sister Rita Commack, OSF, Sisters of St. Francis of Penance and Christian Charity; adapted and used with permission.